

鏡巖 應允의 山居文學 研究*

李 東 宰**

<目 次>

- | | |
|--------------------|--------------|
| I. 緒論 | IV. 文學사적 의미 |
| II. 鏡巖의 생애 | V. 結論 |
| III. 鏡巖의 산거문학 세계 | |

<국문 초록>

본고는 18세기 후반 지리산 벽송사에 귀의하여 禪敎대종사로 칭송을 받았던 경암 응윤의 산거문학을 살펴보고, 문학사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鏡巖 應允(1743-1804)은 조선 정조 년간에 활동한 스님으로, 俗姓은 驪興 閔氏이고, 처음의 법명은 價拭이었으나, 뒤에 應允이라고 고쳤으며, 법호는 鏡巖이다.

경암은 생의 대부분은 佛門에 귀의했어도 조선 후기 이후 여느 승려와 마찬가지로 유가의 철학과 가치체계를 긍정한 儒釋不二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그의 儒釋不二의 의지와 삶을 추구는 때로는 동료 스님과 반목하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을 낳기도 했다.

경암에게 있어서 지리산은 생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이고, 遊樂의 장소였으며, 修禪의 공간이었다. 그는 지리산에서 평생을 살며 다양한 형식의 시 83수

* 이 논문은 2012년 4월 6일, 경상대학교 경상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한 「지리산의 불교문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것임.

** 國立 公州大學校 漢文敎育科 敎授 / leedj@kongju.ac.kr

를 통해 자신의 삶과 철학을 드러내었다.

그의 시세계는, 첫째, 僧俗不二의 實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는 그가 儒佛一致論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자들과 어울려 지리산을 유람하거나 시문을 주고받으며 僧俗不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둘째, 安身樂道の 餘裕로 드러난다. 이는 그가 13세에 불문에 귀의한 이후 그의 삶의 터전은 지리산이었다. 그는 安身樂道の 여유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萬行에 대한 동경과 이에 따른 심적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생의 대부분을 지리산에 살면서 安身樂道の 여유를 즐겼기 때문이다.

셋째, 一心法界의 追求로 드러난다. 이는 그 자신이 禪教 兩宗 대종사답게 화엄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만유의 실체인 一心을 강조하여, 그의 사상과 삶의 궤적은 대립과 차별 보다는 조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경암 산거시의 문학사적 의의는 시문학의 작가층이 지방의 在地 승려들까지 확대되어 일반화 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문의 내용이 ‘성정’을 바로잡는 도구라는 기존의 문학관과 거리가 먼 자신의 체험의 시화하는 변화된 문학관을 보여준 것이 의의가 있다.

【주제어】 경암, 응윤, 山居文學, 僧俗不二, 安身樂道, 一心法界

I. 緒論

鏡巖 應允(1743-1804)은 조선 정조 년간에 활동한 스님으로, 俗姓은 驪興 閔氏이고, 처음의 법명은 慣拭이었으나, 뒤에 應允이라고 고쳤으며, 법호는 鏡巖이다.

경암이 살았던 조선의 18세기 후반은 외부적으로는 鮮初부터 시행되어 왔던 抑佛策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지식인 유자들이 양명학과 고증학과 같은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불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대부와 승려가 만나는 것도 자연

스럽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종교적 이념과 관계없이 문학으로써만 교유하려는 시도가 학문적 역량과 儒者的 소양을 갖춘 승려들에 의해 성행되었다.

경암은 생의 대부분은 佛門에 귀의했어도 조선 후기 이후 여느 승려와 마찬가지로 유가의 철학과 가치체계를 긍정적인 儒釋不二한 삶을 살았으며, 만년에는 禪修行에 정진하며 삶을 마감했다. 이러한 그의 儒釋不二의 의지와 삶을 추구는 때로는 동료 스님과 반목하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을 낳기도 했다.

그는 불교의 경전 및 유가의 경전을 두루 읽고, 아울러 禪教에 두루 통하여 양종 대종사가 된 분¹⁾이라고 평가 받았듯이 불교의 경전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식도 탁월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문집의 序文을 쓴 柳肅之가 그를 ‘중국의 高僧으로서 名文章이었던 惠遠, 太顛 등과 같다고 평가하였다.

경암에게 있어서 지리산은 생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이고,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는 遊樂의 장소였으며, 부처님의 삶을 깨달아 自心の 道를 깨닫고 유지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지리산을 무대로 하여 때때로 道伴들과 혹은 이곳을 찾은 속세의 유자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遊樂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곳에서 신선과 같은 自然一如의 삶을 살면서 禪定에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철학과 삶은 다양한 형식의 시로 드러내었다.

경암의 저서인『鏡岩集』에는 다양한 형식의 시 78수가 실려 있고, 『頭流山會話記』 속에 5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하여 83수의 시를 남겼다.

경암의 문학에 관한 연구 매우 소략하며, 단지 이대영에 의해, 그가 지은 「吳孝子傳」과 「朴烈婦傳」의 내용을 분석하여 儒者가 지은 傳과의

1) 鏡巖, 『鏡巖集』, 『한국불교전서』 卷10,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p.424, 「序」, “師以聰明雅祥之姿, 早入秋波之室, 一心歸依, 終身服事, 偏究內典, 兼通禪教, 豎拂升座, 大衆雲集, 身爲兩宗大宗師.”

성격을 비교분석한「鏡巖 應允과 그의 傳 연구」²⁾가 이루어져 있을 뿐, 그의 시문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고는 스님이면서도 유학자와 많은 교류가 있어서 “매우 유가와 같았다”라는 평을 받은 경암의 산거 문학세계와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 문학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鏡巖의 생애

鏡巖의 생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그의 저서인 『鏡巖集』의 卷3에 실려 있는 「行狀」이 유일하다. 그러나 「行狀」의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그의 출생과 간략한 이력만을 기록하고 있어, 그의 자세한 생애를 고찰하기가 어렵지만, 본고에서는 그의 「行狀」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시대상황과 불교계의 방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살펴본다.

鏡巖 應允은 조선 영조 19년(1743)에 태어나서 순조 4년(1804)에 62세의 일기로 입적한 스님이다. 그의 俗姓은 驪興 閔氏이고, 처음의 법명은 慣拭이었으나, 뒤에 應允이라고 고쳤으며, 법호는 鏡巖이다.

그는 어머니 吳氏가 산청의 鷄鳴山에서 기도하여 그를 낳았다고 한다. 그는 3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5세 때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9세 때에는 이미 經史에 통하였으며, “가을이 깊으니 바람은 대나무를 움직이고, 물이 떨어지니 달은 내를 울리네. 어느 곳으로 별을 따라가는 기러기인가. 쓸쓸하게 멀리 하늘로 들어가누나.”³⁾라고 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는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입산하여 震熙長老에게 머리를 깎고 지리산 경내에 있는 智谷寺의 스님인 寒巖으로부터 具足戒를 받았으며, 그 후 전국을 편력하며 道를 구하다가 당대의 고승인 秋波(1718-1774)의

2) 이대형, 「鏡巖 應允과 그의 傳 연구」, 『韓國禪學』 제27집, 韓國禪學會, 2010.

3) 鏡巖, 『鏡巖集』, 「行狀」, pp.454-455, “秋高風動竹 水落月鳴川 何處隨陽雁 蕭蕭遠入天.”

문하에 들어가서 講學을 전수받았다.

기실 秋波는 17세에 지리산에 들어가 승려가 되기 전에 이미 유가의 경전과 諸子書를 두루 섭렵하였고, 승려가 된 후 鞭羊門派의 槩冠(1700-1762)에게 배웠다. 그 뒤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禪宗과 教宗에 두루 통하였고, 만년에는 주로 念佛禪에 집중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또한 秋波는 불교의 如로 『중용』의 費隱에 대비하는 등 儒釋의 同異를 밝히는 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스승의 儒釋不二的 사상과 가르침은 경암의 사상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그 후 그의 사상과 행동의 표준이 되었다.

경암은 28세 때, 秋波의 문하에서 공부를 마치고, 開講하여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년이 지난 어느 날 “수많은 보배가 있는데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라고 하며 喚庵의 문하에서 참선에 몰입하여 禪旨를 깨달았다. 만년에는 頭流山 정상에 움막을 짓고 2~3명의 제자와 함께 매일 네 차례씩 정진을 하면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며, 1804년 1월 13일 대증으로 하여금 서쪽을 향하여 엄불하게 하고는 臨終偈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입적 후에 문인들이 그의 시문을 모아 『鏡巖集』 3책을 출간하였다.

경암이 살았던 조선의 18세기 후반은 조선의 문화를 중흥에 크게 기여한 정조가 통치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외부적으로는 鮮初부터 시행되어 왔던 抑佛策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정조의 先王인 영조는 승려도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하여 구휼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을 활용하여 王陵을 수호하거나 왕실의 안녕과 구복을 위한 사찰, 護國的 활동이 있는 사찰을 지원하는 등 불교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정조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선왕과 관련이 있는 釋王寺, 奉先寺 등의 사찰에 대한 지원은 물론 番錢制가 사찰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자 이를 반으로 감액하였다. 또한 해남 대둔사에 휴정의 사당을 세우고 ‘表忠’이라고 賜額을 해주고, 화성에 있는 아버지 思悼世子 묘소 인근에 龍珠寺를 창건하였으며, 안변의 석왕사의 비문을 직접 쓰는 등, 불교에

많은 관심과 호의를 베풀었다.

또한 이 시기는 성리학 일변도에서 차츰 이에 대한 반성과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새로운 학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일부 지식인 유자들은 양명학과 청나라의 고증학과 같은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불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자와 승려가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불교는 영정조의 호불책과 유자들의 인식의 전환과 승려들의 자활과 존립의 도모를 통하여 조선 전기에 비해 더욱 활성화 되었다. 이리하여 현존사찰 대부분은 조선후기에 중창, 중수되었고 佛書刊行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수행체계와 법통의 정립, 강학의 성행과 敎學傳受, 사원경제의 기반 확충과 유지, 念佛淨土信仰의 성행 및 유자와의 교류 등이 전개될 수 있었다.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조되어 승려들은 儒者와의 교류를 중시하여, 이들과의 교류에서 불가의 교법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儒佛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⁵⁾ 또 종교적 이념과 관계없이 문학으로써만 교류하려는 시도가 학문적 역량과 유자적 소양을 갖춘 승려들에 의해 성행되었다. 즉 이들은 불교의 內典뿐만 아니라, 유학과 노장학에도 관심을 가져 이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갖추었다. 이들은 유자들과 불교는 물론 유가의 사상에 대해서도 談論을 하였고, 때대로 유자들과 시문으로 酬答하였으며, 승려의 요청에 유자들은 사찰의 중건기, 제문, 등을 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승려 개인의 비문, 책의 序, 跋 등을 써 주기도 했다.⁶⁾

경암은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와 스승인 秋波의 가르침에 따라 유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며 儒佛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4) 권동순, 「朝鮮朝 18세기 禪詩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30-33. 참조.

5) 이진오, 『한국불교문학연구』, 민족사, 1997, p.221.

6) 권동순, 위의 논문, p.34. 참조.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암의 사상은 그의 저서와 행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論如衣大師卞怪說」, 「論尹氏無禍福說」 등 불교의 이론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논박하는 글을 짓기도 했지만, 「論三教同異」에서 불교의 이치와 유가의 이치, 도가의 이치가 하나라고 주장하였다.⁷⁾ 나아가 「吳孝子傳」과 「朴烈婦傳」을 지어 유가에서 중심 실천윤리인 孝와 烈을 강조하였으며, 「丁巳六月日元子誕日佛供疏」, 「乙未六月佛供疏」, 「乙未九月大殿誕日佛供疏」, 「庚申二月初二日冊封佛供慶讚疏」 등 4편의 疏는 부처님께 왕과 왕실, 왕비, 원자, 대비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안녕을 축원하는 글로 국가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와 기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儒釋不二的 의지와 삶을 추구는 때로는 동료 스님과의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을 낳기도 했다. 그가 지은 「頭流山會話記」에 “무례한 부도암의 狂僧이 돌을 들어 우리들을 향해 내던지며 이르기를 ‘禪敎의 都摠攝이 본분인 계율은 지키지 않고 관가의 수령만 따라다니니 어찌 공양을 받을 수 있겠는가?’”⁸⁾라고 밝혔듯이, 인근 고을의 관원들과 지리산을 유람하며 詩酒를 즐기자, 이를 시중들던 승려들이 반발하여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이러한 그의 儒釋不二的 행동은 외적으로 스님들과의 반목을 낳았고, 내적으로도 자신과의 심적 갈등을 드러낸다. 그가 지은 「硯滴傳」은 문방사우를 의인화하여 외물을 중시하는 글쓰기에 대한 반성을 담은 내용이다. 여기에서 그는 “선생은 어찌하여 세속의 소인들과 더불어 경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날마다 옛사람의 찌꺼기와 강산의 바람과 이슬만을 일삼고 그칠 줄 모르는가? 이제 도홍[벼루]은 배가 뚫어졌고 모영[붓]은

7) 鏡巖, 『鏡巖集』, 「論三教同異」, p.454, “白蓮子嘗曰 道一而佛而老而儒矣. 知佛者 老亦佛也 儒亦佛也.”

8) 鏡巖, 『鏡巖集』, 「頭流山會話記」, p.444, “舉石向打曰 禪敎都摠攝 不守本分戒 隨逐官長行 此何足供饋 余聞之悚然”

머리가 벗겨졌으며 진현[먹]은 머리끝까지 닳고 운손[종이]은 색이 바래지고 보풀이 일어나도록 다만 많은 선비들의 부림을 받고 있으나 선생에게 어찌 상관있겠소.”⁹⁾라고 자탄하며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이후 세상과 상접하지 않았다.”¹⁰⁾라고 하여, 속세의 유자들과의 교유를 끊고 지리산 산정에 초막을 짓고 禪修行에 정진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출가하고 득도한 사찰이나 스승이 아닌 전법스승의 법맥을 잇고 그 기반을 계승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講經·講學의 풍조가 심화되고 더불어 敎學을 이론적으로 배제하고 禪宗의 절대적 위위를 강조하는 풍조가 거의 사라지고 禪과 敎의 공존 양상을 나타낸다.¹¹⁾ 또한 敎學의 경전으로는 華嚴經을 所依經典으로 중시되었는데, 이는 화엄경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그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설법한 경문이기 때문이다. 화엄 사상은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어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여서 우주 만물이 서로 圓融하여 무한하고 끝없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경암이 주석했던 지리산 碧松寺는 1520년 碧松 智嚴 선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수행하여 도를 깨달은 유서 깊은 절로 청허 휴정 이후, 부휴 선수, 송운 유정, 청매 인오, 환성 지안 등이 수행 교화하여 조선 선불교 최고의 종가를 이룬 곳이다. 환성 지안대사가 벽송사에 주석하며 금대암에 선원이 개설하고, 벽송사 본당에는 강원을 개설하여 禪敎兼修의 중심도량으로 만들었다. 그 후 벽송사는 교학의 소의경전으로 화엄경을 중시하였고, 선은 부처님의 名號를 외우는

9) 鏡巖, 『鏡巖集』, 「硯滴傳」, p.459, “先生何乃流俗小子 輕瀉肝膽 日事古人糟粕 江山風露 而不知已耶. 今陶泓腹窄 毛穎頭禿 陳玄踵磨至頂 雲孫色悴毛豎 適足爲多士之役也. 於先生何有哉.”

10) 鏡巖, 『鏡巖集』, 「硯滴傳」, p.450, “不復與世上接焉.”

11) 권동순, 「朝鮮朝 18세기 禪詩 研究」, 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35. 참조.

念佛을 증시는 念佛淨土信仰의 중심지가 되었다.

염불의 ‘念’은 ‘지킴[守]’을 뜻하고 ‘佛’은 ‘깨달음’이라는 의미이다. 염불은 戒身念佛, 戒口念佛, 戒意念佛, 動意念佛, 靜意念佛, 語持念佛, 默持念佛, 觀想念佛, 無心念佛, 眞如念佛 등이 있는데, 경암은 이 가운데 집착이 없이 무심하게 하는 無心念佛과 부처님을 생각하는 眞如念佛을 강조하였다.¹²⁾

또한 경암은 “여래법 가운데 원돈지경은 화엄경 같은 것이 없으니, 그 근본은 반드시 일진법계이다. 일진법계라는 것은 곧 이는 一心이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는 것으로, 一心이다 一眞이다 하는 사랑 분별이 없어 바야흐로 진실하고 어지럽지 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¹³⁾라고 설과하였다. 여기에서 一眞法界는 一心法界라고도 하며 모든 법계를 含攝하는 淸淨心이라고 할 수 있다. 一心은 우주만법의 수용처로 개체가 그 안에서 진실로 사는 전체이고, 조화로운 전체를 일심이라고 하였다. 이는 불교와 유교가 서로 다르지 않고 그 도가 하나라는 철학을 긍정하고, 여기에 더하여 禪과 教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긍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문집의 序文을 쓴 柳肅之가 그를 ‘중국의 高僧으로서 名文章이었던 惠遠, 太顛’ 등에 빗대어 평가하였고, 목만중은 ‘유학자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인륜을 실천한 인물’¹⁴⁾로 평가하였으며, 이재기는 ‘奇偉之師로서 불교에 몸을 숨긴 자’¹⁵⁾로 그의 인물평을 했듯이, 그의 생의 대부분은 佛門에 귀의했어도 조선 후기 이후 여느 승려와 마찬가지로

12) 鏡巖, 『鏡巖集』, 「碧松社答淨土說」, p.453, “曰汝欲捷徑頓入之念 是障是濁故 戒汝身口意一汝動靜等 待汝衆念 不能起時 是名無心念佛 從無心三昧中 豁開 極樂正眼 是名眞如念佛也.”

13) 鏡巖, 『鏡巖集』, 「碧松社答淨土說」, p.453, “如來法中 圓頓之經 莫如華嚴 其所宗必一眞法界也 一眞法界者 卽此一心不亂 於此一眞心上 亦無一心一眞之量 方能信入眞實不亂之地”

14) 鏡巖, 『鏡巖集』, 「序」, p.424, “然余不曉禪門旨訣 師之造詣 非余所能言 而準以吾儒踐履之工 師實篤於人倫者也.”

15) 鏡巖, 『鏡巖集』, 「鏡巖稿序」, p.424, “蓋所謂奇偉之師 而隱於禪者 師其一也.”

로 유가의 철학과 가치체계를 긍정한 儒釋不二한 삶을 살았으며, 만년에서야 禪修行에 정진한 것으로 보인다.

Ⅲ. 鏡巖의 산거문학 세계

경암의 저서인 『鏡岩集』은 일반 문인들의 문집과 같은 형식으로 詩와 書, 序, 記 기타 雜著 등 5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다시 시는 시의 형식에 따라 「次答鄉人」 등 五言絶句가 19首, 「隱身幽居」 등 五言律詩 11首와 「隱身庵留別曄師」 등 七言絶句 29首, 「立春次寄崔生」 등 七言四韻이 16首, 기타 「禪居嘆」 등의 古詩體 3首 등 총 78首의 시가 실려 있다. 그리고 관원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과정을 기록한 「頭流山會話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 5수 등이 있으므로, 그는 83수의 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리산을 무대로 하여, 여기에서 때때로 道伴들과 혹은 이곳을 찾은 속세의 유자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僧俗不二한 삶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때로는 自然과 하나가 된 安身樂道의 여유를 보이기도 했으며, 불교에 귀의하여 一心의 도를 추구하는 과정을 읊은 시 등을 지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를 첫째, 僧俗不二의 實踐, 둘째, 安身樂道의 餘裕, 셋째, 一心法界의 追求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僧俗不二의 實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암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외면적으로 불교를 배척하고 억압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유자들과 승려들이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고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승려들도 內典의 공부뿐만 아니라 유가의 경전에도 정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자들과 교류하며 시를 주고받는 등 교류를 하며 僧俗不二한 삶을 추구하였다.

승려와 유자들의 교류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산속에 있는 사찰이었다. 종종 승려가 세간에 내려가 유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주로 유자들이 절간이 있는 산속으로 찾아오거나, 산속에 있는 절간에서 과거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절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유자와 승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경암은 비록 佛門에 귀의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 세간의 인정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가 출가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을 사별했지만 출가하기 전에 집안의 유가적 분위기와 서당에 다니며 배웠던 유가의 핵심 가치인 忠과 孝, 이의 실천행인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출가했지만 여전히 유가적 삶의 이상인 입신양명을 긍정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과거 공부를 하는 선비를 전송하며」라는 시를 통해 경암의 僧俗不二的 사유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 | |
|---------|--|
| 冀北風驥須待價 | 기주의 북쪽에서 말갈기를 날리려면 대가가 필요한 것 |
| 山南霧虎已成文 | 산의 남쪽 안개 호랑이는 이미 문장을 이루었다네. |
| 命名早決龍頭上 | 어서 빨리 아름다운 이름 용머리에 올려 |
| 莫使尊堂久倚門 | 부모님이 오래도록 문밖에서 기다리지 말게 하소서. ¹⁶⁾ |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암은 5살 때부터 서당에 출입하며 유가의 경전을 공부하였다. 그는 유가의 경전을 공부하며 立身揚名の 꿈을 가졌던 것이다. 시의 기구는 화자가 살고 있는 절간에 와서 ‘과거공부를 하는 선비’의 모습이다. 여기에서 ‘冀北’은 ‘중국의 기주의 북쪽은 말의 산지’라는 의미보다는 오랜 세월동안 과거공부를 하여 실력을 갖춘 기라성 같은 선비들이 모이는 한양을 의미하며, ‘風驥’은 ‘바람에 휘날리는 말갈기’라는 외면적 의미보다는 ‘학덕을 갖춘 선비들의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읽힌다. 또한 ‘待價’는 ‘과거공부를 위해 노력한 선비들이 겪은 끈뭇의 고통’을 의미한다. 승구는 과거공부를 위해 인고의 고통을 치룬 선

16) 鏡巖, 『鏡巖集』, 「送科士」, p.429.

비의 모습으로 처음에는 ‘안개 호랑이’처럼 실체가 없었으나 이제는 실력을 갖춘 선비가 된 모습이다.

시의 후반부인 전구와 결구는 ‘과거를 보러 절집을 떠나는 선비에게 하는 당부’이지만, 기실 話者가 어렸을 때에 이루고자 했던 소망이다. 빨리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날마다 대문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유자적 삶의 지향은 다음 시 「立春次寄崔生」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
|---------|--------------------------------------|
| 王春萬化盡同風 | 정월이라 천만변화가 모두 다 바람과 함께 하는데 |
| 底事於吾獨賦窮 | 무슨 일로 나에게만 홀로 시 짓는 일 조차 막히게 하네. |
| 積善不知餘慶在 | 적선을 해도 餘慶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
| 爲家長恨一瓢空 | 집안을 위해 밥 한 공기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길이 한스럽네. |
| 聲聲杜宇孤巖下 | 소적소적 두견새는 고암 아래에서 울고 |
| 兀兀孤松衆草中 | 오뚝하게 고송은 무성한 풀밭에 서있네. |
| 聞道吾君猶蹇滯 | 도를 깨치고자 한 나는 아직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
| 麻衣白屋已衰容 | 삼베옷입고 구렁진 초가집에 살고 있네. ¹⁷⁾ |

시의 수련은 출가하여 스님이 된 이후 아직도 현실에 대한 未練을 가지고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출가하지 않았으면 여느 유자처럼 입춘이면 새벽 땃바람에 대궐에 입조하여 입춘첩을 쓰며, 한 해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시를 짓는 모임에 참석했겠지만, 출가한 자신은 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함련은 수련의 갈등과 고민의 구체적인 설명이다. 화자가 어렸을 때 유가의 경전을 배우며 익힌 ‘積善之家 必有餘慶’을 위한 菩薩行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出家를 결행하였건만, 결과는 집안 식구를 위해 ‘밥 한 공기’도 마련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괴롭기만 하다.

시의 후반부인 경련과 미련은 화자의 현재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17) 鏡巖, 『鏡巖集』, 「立春次寄崔生」, p.429.

경련은 깊은 지리산 산속에 있는 절집과 그 속에서 사는 자신의 모습으로, 속세를 등진 자신의 모습을 ‘杜宇’, ‘孤巖’, ‘孤松’ 등 ‘외로움’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련은 아직도 成佛하여 중생을 제도하고자하는 큰 誓願을 이루지 못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다.

경암이 이러한 속세에 대한 미련은 다음의 시 「次答鄉人」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剃髮家亡後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 온 후
 殘生重辱先 남은 여생 심한 수치가 앞서네.
 逢人無所答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
 強道學神仙 억지로 신선술을 배운다고 말한다네.¹⁸⁾

시의 전반부는 儒家에서 금기시하는 머리를 삭발하고 스님이 된 자신의 모습과 여전히 남아있는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생기는 갈등과 자괴감이다. 시의 후반부는 그래도 ‘신선술을 배운다’는 억지의 변명으로 자신의 처지를 방어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암의 僧俗不二的 삶은 자연스럽게 유자들과 어울려 詩酒를 나누며 교류를 하였다. 다음의 시 「天光共儒士拈韻」은 그가 유자들과 자연스럽게 시주를 나누는 모습을 詩化한 것이다.

聖代崇文學 태평성대엔 문학을 숭상하여
 開樽盡謫仙 술동이를 비우면 모두 다 이태백이 된다네.
 水流松下石 계곡물은 소나무 아래 바위 위로 흐르고
 人坐洞中天 사람들은 한가로이 선경에 둘러 앉아있네.
 聽鳥拈新韻 새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운을 고르고
 敲鐘悟宿緣 종소리를 묶은 인연을 깨닫는다.
 桃源餘後約 도원의 약속은 훗날의 약속으로 남기니
 花發又明年 꽃이 피려면 또 내년일세.¹⁹⁾

18) 鏡巖, 『鏡巖集』, 「次答鄉人」, p.426.

맑게 갠 날 유자들과 시를 짓는 모습을 시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시의 구도가 先景後情의 구도로 짜여져 있으나 全篇의 시가 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수련은 절대왕조시대에는 늘 그랬듯이 화자는 당대의 현실을 태평성대라고 인식하고 이를 表白하는 문학의 역할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함련은 화자를 비롯한 승려와 유자들이 사찰 주변의 경치가 좋은 계곡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며 시를 짓는 모습이다. 미련은 유자와의 훗날의 기약이다. 이처럼 경암은 비록 출가한 승려의 신분이었지만 당대의 다른 고승과 마찬가지로 그의 학문적 학식과 덕망, 나아가 심오한 불교 지식에 더하여 높은 禪旨를 가지고 있어서 유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僧俗不二한 삶을 살았다.

다음의 시는 「頭流山會話記」 속에 들어 있는 삼입 시이다. 이 시는 사대부 관원들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며 지은 시로, 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외교적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작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 | |
|---------|--|
| 觀空觀色摠無干 | 觀空觀色은 모두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닌데 |
| 高臥雲端碧樹寒 | 高雲이 머무는 푸른 숲속에 누우니 한기가 돋네. |
| 聯韻偏憐工部語 | 운을 다느라 지나치게 두보의 말에만 빠졌건만 |
| 老年花似霧中看 | 노안이라 마치 안개 속에서 보는 것 같네. ²⁰⁾ |

경암은 講經과 參禪을 통해 色과 空을 徹見하는 것이 승려의 본분인데, 본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한가롭게 숲속에 누워 자연락을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두보의 시집을 더듬어 좋은 시구를 찾기에 몰두하지만 노안이라 마음에 맞는 시구를 찾기가 어렵다고 투덜대고 있다. 결구의 ‘老年花似霧中看’은 두보의 「小寒

19) 鏡巖, 『鏡巖集』, 「天光共儒士拈韻」, p.427.

20) 鏡巖, 『鏡巖集』, p.445.

食舟中作」詩의 일부인 ‘春水船如天上坐, 老年花似霧中看’을 그대로 用事하여 자신의 시어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 ‘老年花’는 ‘사물을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경암의 僧俗不二的 삶과 행동은 그의 사유가 유교와 불교, 도교의 이치가 하나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다음의 시 「次李生」에서 그가 갖고 있는 유가와 도가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 | |
|---------|------------------------------------|
| 聖言誰是又誰非 | 성인의 말씀은 누군 옳고 또 누구는 그른가? |
| 孔老瞿曇一理歸 | 공자와 노자, 석가모니는 하나의 이치로 돌아간다네. |
| 甘苦頭頭皆是味 | 달고 쓴 것은 모두 본래의 맛 |
| 溫涼處處各裁衣 | 덥고 추운 곳에 따라 각기 옷을 만들어 입는 것 |
| 擇交宇內居仁智 | 가리어 사귀고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과 이웃하여 살며 |
| 刻欲時中察細微 | 욕심을 줄이고 시중에 맞게 아주 작은 것도 살핀다. |
| 莫謂枯僧空寂滅 | 늙은 스님에게 함부로 적멸을 말하지 말고 |
| 鳶魚上下識天機 | 鳶飛魚躍하는 자연의 기미나 알게나. ²¹⁾ |

이 시는 화자가 禪門에 귀의하여 깨달음을 얻은 후의 자신의 모습을 시화한 것이다. 수련은 儒佛道가 일치한다는 자신의 지론이다. 기실 경암은 「論三教同異」을 지어 “도는 하나로서 불가가 도가이고 도가가 유가이다. 불가를 아는 자는 도가가 또한 불가이고, 유가가 또한 불가임을 안다.”²²⁾고 설파하였다. 함련은 儒佛道는 본래 이치가 하나이지만 인간은 각기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유가나 불가, 도가를 선택하면 된다고 여기고 있다.

경련은 논어의 “子曰 里仁 爲美 擇不處仁 焉得知”와 노자의 ‘寡慾’에 대한 이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삶을 미화하고 있다. 미련은 시적 대상인 李生과의 갈등장면이다. 李生이 알팍한 불교의 지식을 가지고 ‘불교의

21) 鏡巖, 『鏡巖集』, 「次李生」, p.430.

22) 鏡巖, 『鏡巖集』, 「論三教同異」, p.454, “白蓮子嘗曰 道一而佛而老而儒矣. 知佛者 老亦佛也 儒亦佛也.”

무용론'내지는 '불교의 허구성'을 주장하자, 화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생에게 “鳶飛魚躍하는 자연의 기미나 알게나.”라고 하여 유학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기실 경암은 이생과 같이 불교의 윤회설이나 화복설을 비판하는 유자들을 설득하거나 불가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論如衣大師下怪說」과 「論尹氏無禍福說」 등을 지어 적극적으로 불교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이후 유자들은 이론적으로는 불교를 이단이라고 배척하면서도 실재로는 학덕과 선지식이 높은 고승들과 많은 교유를 하였다. 사찰 주변은 경승지가 많아 자연스럽게 절집은 이들에게 숙소가 되고 승려들은 이들을 시중들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 시문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승려들은 일관되게 불교는 유교와 다른 出世間이 사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유교사상과 일치한다는 儒佛一致 사상이 심화되어 승려들 또한 스스로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경암도 당시 불교계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儒佛一致論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자들과 어울려 지리산을 유람하거나 시문을 주고받으며 僧俗不二한 삶을 살았다.

2. 安身樂道の 餘裕

경암은 그의 「행장」에서 알 수 있듯이, 13세 이후 그의 삶의 터전은 지리산이었다. 그는 13세에서 27세까지 14년간은 화엄경과 같은 불교의 敎學을 공부하는 기간이었고, 28세부터 20여 년간 경전을 강학하며 중생을 제도하였으며, 48세부터는 지리산의 산정에 초막을 짓고 禪修行에만 정진하다가 삶을 마감하였다. 이렇듯 경암은 13세 이후 생의 대부분을 佛門에 歸依하여 지리산에 살면서 安身樂道の 餘裕를 즐겼다.

본 절에서는 경암이 佛門에 귀의하여 自然樂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시화한 시를 중심으로 그의 安身樂道の 餘裕를 살펴본다.

다음의 「隱身幽居」를 통해 지리산 산속에 있는 절집에 들어가 安身樂道의 여유를 즐기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 |
|-------|-------------------------------------|
| 有緣携一鉢 | 인연 따라 바리때 하나 손에 들고 |
| 信錫步還迷 | 지팡이에 맡긴 걸음 다시 미혹에 빠진다. |
| 路入無人處 | 산길은 인가가 없는 곳으로 접어들고 |
| 山高隱者棲 | 산이 높아 은자가 숨어 살만하네. |
| 晚風松檜暗 | 저녁 바람 부는 노송숲은 어두워지고 |
| 新月杜鵑啼 | 손톱달 아래 두견새가 우는구나. |
| 此處真安樂 | 이곳이 진정으로 安身樂道를 할 수 있으니 |
| 何須更往西 | 또다시 서쪽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나? ²³⁾ |

시의 수련은 禪門에 귀의할 때 화자의 모습이다. 경암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의 조선의 사상적 분위기는 여전히 유학이 중심사상이었으므로 儒者나 양반가의 자제가 출가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당시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입신양명하여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인간사의 常道였다. 화자는 이러한 세간의 도를 버리고 출가하였지만, 出世間의 상황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혹[迷]’뿐이다.

함련은 ‘山居’에 대한 만족이며, 경련은 ‘산거의 만족’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세간에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부딪치며 생기는 갈등보다는 달빛아래에서 들리는 ‘솔바람’소리와 여기에 더하여 ‘두견새 울음’소리가 法音처럼 들려 화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있다. 미련은 다시 ‘산거의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話者는 자신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安身樂道할 수 있으니 여기가 바로 西方淨土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암은 산거에 따른 安身樂道의 여유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萬行에 대한 동경과 이에 따른 심적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심적 갈등은 다음의 「送司順師遊方之棲鳳」 시에서 확인할 수

23) 鏡巖, 『鏡巖集』, 「隱身幽居」, p.427.

있다.

| | |
|---------|---|
| 送爾千山萬水遊 | 그대를 천산만수 유람길에 전송하는데 |
| 梧桐疎雨滴新秋 | 오동잎에 가랑비가 물방울 지는 초가을 |
| 子長海岳將飛錫 | 사마천처럼 海嶽을 찾느라 지팡이를 허공에 날렸고 |
| 博望仙河共泛舟 | 張騫처럼 신선이 사는 은하수를 찾느라 함께 배를 띄웠지. |
| 學解盤根宜下手 | 학식은 이리저리 뒤엎켜 下手가 마땅하며 |
| 名利當道急回頭 | 명리가 바로 이 길이라 여기고 급히 머리를 돌렸네. |
| 鳳樓知在鴻濛上 | 봉새가 깃드는 곳은 홍몽 위에 있음을 알고 |
| 自笑鷓鴣不出邱 | 스스로 뱀새처럼 언덕 하나도 넘지 못함에 쓴 웃음 짓는다. ²⁴⁾ |

시의 전반부는 화자가 초가을 오동잎에 가랑비가 내리는 날 萬行을 떠나는 사순스님을 전송하는 장면과 증원 천지를 壯遊體驗했던 사마천과 같은 선인들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기실 사마천은 26년의 ‘壯遊’ 체험을 통해 웅장한 문장을 이루어 불후의 명작인 『史記』를 남겼다. 또한 張騫은 西域을 여행하여 서역과 중국의 교통로를 연 인물이다.

시의 후반부는 화자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이에 대한 갈등이다. 즉 禪門에 귀의하여 깊은 禪旨를 깨닫는 것이 자신이 佛門에 귀의한 목적이 었건만, 아직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더하여 드넓은 세계로 만행조차 떠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뱀새’같다고 자탄하고 있다. 이러한 작자의 심적 갈등은 다음의 「醉僧」에서도 확인된다.

| | |
|---------|---|
| 纈眼看人素味間 | 눈을 감고 사람을 바라보니 본디 우매한 사람 |
| 挽衣痴笑問平安 | 옷을 말아 올리고 바보처럼 웃으며 안무를 묻는다. |
| 憮然怪我不相答 | 멍하니 나를 괴이하게 바라보고 대구를 하지 않으니 |
| 背道高僧何出山 | 도를 저버리고 고승이 어찌 청산을 나설 수 있으랴! ²⁵⁾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적 갈등이 있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스

24) 鏡巖, 『鏡巖集』, 「送司順師遊方之棲鳳」, p.430.

25) 鏡巖, 『鏡巖集』, 「醉僧」, p.428.

럽게 술을 마시며 이를 해소 한다. 경암도 술을 통해 이러한 심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기구의 “눈을 감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논리의 모순으로, 술을 마신 화자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다. 여기에서 ‘人’은 ‘제3자’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지만 ‘人’이라는 ‘제3자’를 借用하여 自問自答을 객관화한 것이다.

화자 자신은 타고난 본성이 우매하고 여기에 더하여 행동거지도 경망스럽다고 자답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하여 지금까지 지켜온 불가의 도를 저버리고 청산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산거를 통한 安身樂道の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다음의 시 「病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
|-------|---------------------------------|
| 病居人罕到 | 인적이 드문 곳에 와 병들어 사노니 |
| 春草傍階生 | 봄풀은 섬돌 옆에서 돌아나는구나. |
| 食少衣裾重 | 먹는 것이 적어 승복마저 무거운데 |
| 心空步履輕 | 마음을 비우니 걸음 거리가 가볍구나. |
| 豈無床上卷 | 어찌 침상 위에 서책이 없으라마는 |
| 難發腹中聲 | 뱃소리조차 내기가 어렵구나. |
| 不知城市上 | 城市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데 |
| 人事更何如 | 인간사를 어찌 또 다시 논하랴 ²⁶⁾ |

수련은 따뜻한 봄날 선방에 병들어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함련과 경련은 병들어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화자는 병이 들어 누워있으니 입맛이 없고, 입맛이 없으니 먹은 것이 적어 승복조차 힘에 부친다. 여기에 더하여 독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염불조차 할 수 없는 중병이다. 미련은 다시 화자의 다짐으로, 禪門에 귀의하여 속세를 떠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경암은 20여 년간 강학을 하며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여전히 禪旨에

26) 鏡巖, 『鏡巖集』, 「病居」, p.427.

대한 목마름이 여전하였다. 그래서 그는 선지를 깨달으려고 萬行을 떠났다가 다시 지리산에서 주석하고 있던 喚庵의 문하에서 참선에 몰입하여 禪旨를 깨달았다. 경암이 지리산의 산사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禪定에 든 화자의 모습을 「送印頭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一衲單飄外 가사 한 벌 바리때 하나 차림으로
 千山萬水間 천산과 수만 계곡을 누비다.
 夜深香歇後 밤은 깊어 향내도 사그라진 뒤
 趺坐佛燈間 불등 앞에 가부좌를 틀고 있다.²⁷⁾

시의 전반부는 禪旨를 깨닫기 위해 가사 한 벌에 바리때 하나를 짊어지고 千山萬壑을 건너 雲水行脚을 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다. 시의 후반부는 다시 만행에서 돌아와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신의 현재 모습이다.

기실 경암은 禪旨를 깨달은 후 만년에는 頭流山 정상에 움막을 짓고 2~3명의 제자와 함께 매일 네 차례씩 정진을 하면서 煩惱와 衣食住에 對한 貪慾을 버리고 깨끗하게 佛道를 닦는 修行을 하며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경암이 이처럼 산거를 통한 安身樂道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다음의 시 「題天王峯」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展脚蟠南國 산기슭은 남국으로 뻗어 서리어 들고
 擡頭入紫虛 붉은 빛 허공에 산머리를 들어 올렸네.
 白雲藏不得 백운에 잠기어 찾아 볼 수 없고
 仙窟半人居 선굴에 상반신의 인간만 살고 있네.²⁸⁾

시의 기구는 화자가 晩年에 喚庵에게서 禪旨를 얻은 후 지리산 산정

27) 鏡巖, 『鏡巖集』, 「送印頭陀」, p.426.

28) 鏡巖, 『鏡巖集』, 「題天王峯」, p.426.

에 초막을 짓고 禪修行을 하던 지리산의 천왕봉에 대한 지리적인 해설이다. 지리산은 백두산에서 뻗어온 백두대간이 지리산에서 한 번 솟구쳐 오르고 다시 바다 밑으로 뻗어 한라산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천왕봉은 백두대간의 정맥으로 지리산을 상징한다. 승구는 천왕봉의 모습이다. 천왕봉은 아침이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의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 붉게 빛나고 저녁이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다. 전구는 늘 백운에 가리어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고 있는 천왕봉의 평상시의 모습이자 ‘자신’의 모습이다. 그는 다른 시에서도 “달빛에 드러나면 진경이 아니요, 명성이란 쉬이 허망이 빠진다네.”²⁹⁾라고 하여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지극히 꺼려했다. 결국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비함을 간직한 천왕봉 선굴의 주인이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다. 즉 선굴에 사는 ‘牟人’은 가부좌를 틀고 禪定에 든 자신의 모습이다.

경암은 禪旨를 깨달은 후에 지리산 산정에서 초막을 짓고 선수행을 하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면서 安身樂道의 여유를 즐겼다.

| | |
|---------|---|
| 乾坤嘘出白飛飛 | 천지사방에서 뿜어 나와 하얗게 퍼들퍼들 날고 |
| 行雨千峰不復歸 | 천봉만학에 지나가는 비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
| 草木高低皆發育 | 초목은 크고 작건 간에 모두 크게 자라는데 |
| 又隨清月鎖仙扉 | 또 맑은 달을 따라 신신의 집 사립문을 닫는다. ³⁰⁾ |

서운스님에게 자신의 일상을 알리는 시로, 지리산 산정에 초막을 짓고 참선하는 자신의 삶의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있는 공간은 지리산 꼭대기라 절기가 봄이 왔건만 봄눈이 ‘퍼들퍼들’ 날리고, 때대로 지나가는 비가 지리산의 여러 산봉우리와 골짜기에 내리자, 크고 작은 초목들은 모두 싹이 움트고 자란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누가 시켜서도 되

29) 鏡巖, 『鏡巖集』, 「有士人誦余天王峯詩來訪口次酬之」, p.426, “月露非眞境 名聲易出虛.”

30) 鏡巖, 『鏡巖集』, 「寄瑞雲師」, p.429.

는 것이 아니고 막을 수도 없는 자연의 입법이다. 화자는 자연의 입법에 따라 순응하며 생활하니 조금도 조금할 것이 없다. 결구의 ‘淸月’은 천상의 ‘밝은 달’이라는 의미와 함께 ‘부처님의 법음’이나 ‘부처님의 깨우침’이라는 重義로 읽힌다. 따라서 화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청산에서 욕심 없이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암은 13세에 불문에 귀의한 이후 그의 삶의 터전은 지리산이었다. 그는 지리산의 사찰에서 교학을 강학하며 중생을 제도하였으며, 48세부터는 지리산의 산정에 초막을 짓고 禪修行에만 정진하다가 삶을 마감하였다. 경암은 산거에 따른 安身樂道의 여유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萬行에 대한 동경과 이에 따른 심적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생의 대부분을 佛門에 歸依하여 지리산에 살면서 安身樂道의 여유를 즐겼다.

3. 一心法界의 追求

조선 후기에는 敎學의 경전으로는 華嚴經을 所依經典으로 중시되었다. 화엄 사상은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어 우주 만물이 서로 圓融하여 무한하고 끝없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경암은 秋波의 문하에서 화엄경을 전수 받는 등 禪敎에 두루 통하여 양종 대종사가 된 분이라고 평가 받았듯이, 화엄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앞 장의 그의 생애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사상과 삶의 궤적은 대립과 차별 보다는 僧俗不二하고 自然一如한 조화를 강조하는 철학과 삶을 살았다. 이는 그의 사유의 기저에 화엄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실천한 것에서 기인한다.

승려가 구도자로서의 종교적 체험을 시라는 형태를 빌려 종교적 감성으로 드러낸 것을 선시라고 할 수 있다. 경암의 경우에도 여느 승려와 마찬가지로 그의 종교적 체험을 시로 드러내었다. 따라서 그가 지은 시

는 그의 사유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 체험의 결과물인 것이다.

경암은 자신이 살던 당시의 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다음의 시 「禪居嘆」에서 드러내고 있다.

(前略)

| | |
|-------|--|
| 上惡同眞際 | 上惡은 진리와 함께 하고 |
| 盜殺勿嫌諸 | 도살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구나. |
| 姪房與酒肆 | 기생집과 술집을 |
| 無往不安居 | 아무 거리낌 없이 찾아가는구나. |
| 慕佛縛於佛 | 부처가 되기를 위하여 부처에 속박당하여 |
| 學道揔爲虛 | 도를 배우는 것이 모두 부질없이 되었네. |
| 波離拘小戒 | 우마리는 작은 계율에 얽매여서 |
| 不能入無餘 | 無餘의 열반에 들어갈 수 없었다. |
| 信此大乘法 | 진실로 이 같은 대승법은 |
| 惟魚乃知魚 | 오직 물고기만 물고기를 알 수 있는 것 |
| 乍入禪門者 | 잠시 선문에 든 자는 |
| 聞之沒分疏 | 조목조목 자세히 들을 수는 없다. |
| 遂作波旬說 | 드디어 파순설을 짓고 |
| 放達爲眞如 | 放達을 眞如라고 하네. |
| 黨援稱師子 | 무리를 지어 스승과 제자라고 일컫고 |
| 依係混緇裾 | 어렴풋이 스님들과 뒤섞여있네. |
| 若此而禪社 | 이와 같이 하고서 |
| 安得不爲墟 | 禪社를 어찌 더 잡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³¹⁾ |

경암은 자신이 살았던 당시의 불교계의 실상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의 스님들은 무간지옥행인 上惡을 진리와 혼동하고 殺生을 거리낌 없이 행하며, 여기에 더하여 무시로 기생집을 아무 거리낌 없이 출입하고 있다. 또 일부 스님들은 우마리처럼 경직되게 작은 계율에 얽매어 ‘無餘의 열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계율을 具足하는 것은 참으로

31) 鏡巖, 『鏡巖集』, 「禪居嘆」, p.430.

훌륭한 것이지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三昧를 닦지 않으면 안 되고, 삼매를 닦는 것에 빠져 일체제법의 無相, 苦, 無我를 徹見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를 이룰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잠시 참선을 하고 깨달았다고 속여 ‘放達’를 ‘眞如’라고 하고, 무리를 지어 서로 스승과 제자라고 일컫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기실 경암은 열반에 이르려면 보살행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한 구절의 아미타경 속에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니, 이를 戒바라밀이라고 하고, 안정된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니 禪바라밀이라고 하며,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미혹한 것도 아니니 慧바라밀이라고 하며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니 본디 정토이다.”³²⁾ 라고 하여, 보살수행을 강조하였다. 보살수행은 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 등 여섯 가지이지만 이 가운데, 戒法을 지키고 六根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戒波羅蜜, 禪修行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禪波羅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어리석음을 다스려서 진실한 지혜를 얻는 慧波羅蜜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당시의 불교계가 청정한 계율도 지키지 않고, 참선을 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경암의 소망과는 다르게 불법이 나락에 떨어지자 큰 誓願을 세우고 출가했던 스님들이 절간을 버리고 부처님의 꿈을 떠나는 하나 둘씩 늘어만 갔다. 급기야 그와 함께 공부했던 스님이 절간을 떠나자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불법을 수호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
|-------|---------------------|
| 佛法時惟降 | 불법은 시절에 따라 나락에 떨어지고 |
| 叢林摠是非 | 총림은 모두 시비에 쌓였네. |
| 吾將於此隱 | 나는 장자 이곳에 숨어살련만 |
| 君去欲誰依 | 그대는 떠나면 누구에게 의지하라 |

32) 鏡巖, 『鏡巖集』, 『碧松社答淨土說』, p.453, “一句阿彌中 非是非非 戒波羅蜜 非定非亂 禪波羅蜜 非悟非迷 慧波羅蜜 無去無來 自淨土也”

夏木棲黃鳥 여름 숲엔 찌꼬리가 살고
 晴雲下翠微 맑은 구름은 산허리에 내려앉는다.
 人情易逐物 인정은 쉬이 물욕을 좇지만
 駐杖立斜暉 지팡이 짚고 저녁노을 서 있다.³³⁾

시의 전반부는 불문에 귀의했다가 불문을 떠나는 及스님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불교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의 불교계는 국가의 抑佛策으로 인해 승려에 대한 과도한 세금과 성곽의 보수와 축조에 따른 노동력의 징발로 인한 사원경제의 붕괴, 여기에 더하여 사상적 탄압과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불법을 수호해야할 사찰이 점점 줄어들고 승려 또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총림에서도 부처님의 청정계율을 지키지 않은 승려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각종 시비에 휘말려 드는 일이 많아졌다.

시의 후반부는 화자가 살고 있는 산속의 한가로운 풍경과 세태에 따라 불문에 귀의했던 스님들이 떠나가지만, 여기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다음의 시 「次北海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夢幻人間事 덧없는 인간사
 兄今七十年 형은 70년이나 살았구려
 世情何足問 세상 물정이야 어찌 물으라미는
 吾道貴心傳 우리의 도는 이심전심을 귀히 여기니
 老去言猶壯 늙어 가며 말은 더욱 건장해 지고
 窮來志益堅 곤궁해지니 의지는 더욱 견고해지네.³⁴⁾
 (後略)

師兄인 북해스님에게 녀두리를 통해 불도를 지키는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해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부처를 배척

33) 鏡巖, 『鏡巖集』, 「別及師」, p.427.

34) 鏡巖, 『鏡巖集』, 「次北海兄」, p.427.

하고, 부처를 믿고 따르는 스님을 하대하는 세상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계율을 지키며 禪旨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 것을 칭찬하며 자신의 귀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4구의 ‘心傳’은 ‘以心傳心’의 준말로 禪을 말한다. 당시의 불교계는 禪敎의 兼修를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진리인 法은 언어적 思量分別을 통해서는 證得할 수 없고 언어의 分別을 초월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以心傳心이기 때문에 參禪을 통해 自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경암은 ‘自心’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시 「講師行」을 통해 그가 ‘自心’의 깨달음을 얼마나 강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 |
|---------|---------------------------------|
| 如來四十九年說 | 석가모니가 49년 동안 설파한 말씀 |
| 達觀烘爐一點雪 | 달관은 붉게 타오르는 화로의 한 점 눈이라 |
| 謾將黃葉止啼兒 | 속여 황엽을 가지고 우는 아이를 그치게 하고 |
| 更爲迷人標指月 | 다시 미혹한 사람으로 하여금 달을 가리키게 하는구나. |
| 月在天心標在指 | 달은 하늘에 있고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에 있는데 |
| 定眼指頭徒汨汨 | 定眼을 손가락 끝만 보고 다만 헤어날 줄 모르네. |
| 疏鈔百家何枝蔓 | 백가의 말을 거칠게 집어내니 어찌 가지와 덩굴이 아니라? |
| 指掌提耳慈悲切 | 쉽고 친절하게 자비심으로 바로잡아도 |
| 此道亡羊不可尋 | 이 길은 아득하여 찾을 수가 없고 |
| 聽水狐疑誰與決 | 여우처럼 의심이 많아 누구와 더불어 결정하겠는가? |
| 若了自心心是經 | 自心을 깨달으면 자심이 바로 경전인데 |
| 如來說法何曾別 | 여래의 설법을 어찌 구별하라? ³⁵⁾ |

敎學과 講經을 통해 부처님의 설법을 깨우쳐 달관에 이르면 붉게 타오르는 화로 속에 한 점 눈이 찰나에 녹듯이 번뇌와 망상이 찰나에 사라진다. 여기에는 衆惡의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는다. 또한 自心을 밝히는 선수행을 통해 무분별의 깨달음을 얻으면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物

35) 鏡巖, 『鏡巖集』, 「講師行」, p.427.

慾에 팔리는 마음이 없고, 또 옳고 그른 것이나, 좋고 나쁜 것에 干涉이 떨어진 境界에 이른다. 그러나 증생은 迷惑으로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쌓아온 習氣로 말미암아 모든 현상이 ‘스스로의 마음[自心]’에 의해서 나타난 것임을 알지 못한다.

마음을 알고 깨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온갖 敎와 禪의 궁극도 결국은 自心을 밝히는 것으로 귀일한다. 그 자심은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 구비되어 있으며 그 작용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근원이다.³⁶⁾ 또한 마음은 眼, 耳, 鼻, 舌, 身, 意의 六根이 色, 聲, 香, 味, 觸, 法의 六境에 따라 작용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경암은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승인 ‘보살행’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시 「敎后寄呈惠庵和尚」을 통해 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 |
|---------|-------------------------------------|
| 覺道安禪是化城 | 도를 찾고 선정에 드는 것이 바로 성이 되건만 |
| 歸家須上白牛程 | 집에 돌아가려면 모름지기 백우의 여정에 올라야 하리 |
| 風濤險域挺身入 | 바람 불고 파도치는 위험한 구역에서 몸을 빼내어 |
| 雨露恩天信步行 |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 곳에 보행을 맡겨야 하리 |
| 老病已催餘一事 | 늙고 병든 것은 이미 재촉하는 한 개 남은 나머지 일 |
| 慈悲尙許濟群生 | 자비심은 아직도 군생을 제도하고자 하네. |
| 深心報佛窮塵刹 | 마음 속 깊이 티끌세상을 제도하여 부처님께 보답하는데 |
| 時論無端責利名 | 시대의 논의는 끝없이名利를 책망하네. ³⁷⁾ |

승려가 禪定에 드는 것은 分別心을 끊고 無分別에 의한 思量分別의 깨달음을 이루면 外物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 세상은 欲界, 色界, 無色界로 이루어져 있어서 色慾, 食慾, 財慾과 같은 탐욕에 노출되어 ‘바람이 불고 파도치는 위험한 구역’이다. 이 위험한 구역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 곳’에 이르는 것이 바

36) 권동순, 『朝鮮朝 18세기 禪詩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79.

37) 鏡巖, 『鏡巖集』, 「敎后寄呈惠庵和尚」, p.430.

로 ‘해탈’이다.

경암은 해탈을 했으면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중생을 제도하는 菩薩行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 2구의 ‘백우의 여정’은 大乘으로, 즉 菩薩乘을 실천하라는 의미이다. 『壇經·機緣品』에 “무념은 생각이 바름에 가깝고, 유념은 간사함이 된다. 있고 없음이 모두 계획되어 있지 않으니 길이 백우의 수레를 몰아야 한다.”³⁸⁾고 하였듯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성불의 목적이다.

시의 후반부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보살행에 대한 의지이다. 비록 자신은 늙고 병든 몸이지만 보살행을 실천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경암은 秋波의 문하에서 화엄경을 전수 받는 등 禪教에 두루 통하여 양종 대종사가 된 분답게 화엄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만유의 실체인 一心을 강조하여, 그의 사상과 삶의 궤적은 대립과 차별 보다는 僧俗不二하고 自然一如한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그의 사유의 기저에 화엄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를 실천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IV. 문학사적 의의

경암이 살았던 조선의 18세기 후반은 禪詩가 儒佛交流의 매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의 일부 지식인 유자들의 탈 성리학적 학풍과 승려들의 고준한 생활상을 인정하는 유자들의 인식전환 등은 유자와 승려와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교계 내부에서도 講學과 私記의 저술로 인한 교학의 융성, 임제법통의 禪脈繼承, 禪教의 兼修와 兼學을 이루어 낸 당대 불교계를 주도하던 선승들의 선 수행과 유불에 대한 박학은 시문을 매개로 유자와 교류하고 전법을 펼치는 풍부한 밑거름을

38) 『壇經·機緣品』, “無念念即正 有念念成邪. 有無俱不計 長御白牛車.”

제공했다.³⁹⁾

경암은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와 궤를 같이하여, 유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며 儒佛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의 사상과 삶의 궤적은 대립과 차별 보다는 僧俗不二하고 自然一如한 조화였다. 이는 그의 사유의 기저에 화엄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실천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그의 儒釋不二의 의지와 삶을 추구는 때로는 동료 스님과의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을 낳기도 했다.

승려가 산사를 배경으로 하여 구도자로서의 종교적 체험을 시라는 형태를 빌려 종교적 감성으로 드러낸 것을 선시라고 할 수 있다. 경암의 경우에도 여느 승려와 마찬가지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여 그의 종교적 체험을 83편의 시로 드러내었다. 그의 산거 시문학이 갖는 문학사적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의 내용이 자신의 삶의 환경인 산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삶의 공간은 깊은 산속의 산사였다. 그는 이곳에서의 자연과 하나가 되거나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면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安身樂道를 추구하였다. 이는 18세기 이후 지방의 재지 유자들의 시에 상당량의 분량을 차지하는 생활주변의 시와 연관을 맺는다.

둘째, 상징성이 고도로 높은 禪的인 시어와 反常의 논리보다는 일상의 친근한 시어와 어법을 사용하였다. 그의 시에는 선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법을 벗어난 어법, 논리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 비논리적, 역설적인 反常合道의 표현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가 禪教一致를 주장하는 선교대종사로서 일반 유자와 신도들이 ‘이해 가능한 선시’를 창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大乘의 실천인 利他行을 강조한 승려였다. 보살행과 중생의 구제라는 차원에서 자신과 교류를 맺는 유자들과 일반신도들이

39) 권동순, 「朝鮮朝 18세기 禪詩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88. 참조.

이해할 수 있는 시를 써야만 이들과의 교유를 지속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을 교화할 수 있다. 또한 시어에 있어서도 고도의 상징을 띠고 있는 선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그의 문집의 跋文을 쓴 李在璣가 “酷似儒家語”라고 평한 것이다.

셋째, 시문의 교유 대상자가 지리산 지역의 관원이나 유자, 이름 없는 도반 등이다. 이는 기존의 승려시인들이 시문을 주고받은 인물들은 경화사족의 명망가가 주류를 이룬 것과 비교된다.

위에서 제시한 특징처럼, 경암의 산거시는 조선 후기 한시사적 특징이 시문학의 향유층이 점증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시문학의 작가층이 경화사족 중심의 시문학에서 그 범위가 지방의 재지 유자와 중인층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승려들까지 확대되어 일반화 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문의 내용이 ‘性情’을 바로잡는 도구라는 기존의 문학관과 거리가 먼 자신의 체험의 시화하는 변화된 문학관을 보여준 것이 의의가 있다.

V. 結論

본고는 18세기 후반 지리산 벽송사에 귀의하여 禪敎대종사로 칭송을 받았던 경암 응운의 산거문학을 살펴보아 문학사적 의의를 찾아보는 것이 목적으로 하여, 그의 생애와 산거문학세계,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鏡巖 應允(1743-1804)은 조선 정조 연간에 활동한 스님으로, 俗姓은 驪興 閔氏이고, 처음의 법명은 慣拭이었으나, 뒤에 應允이라고 고쳤으며, 법호는 鏡巖이다.

경암은 생의 대부분은 佛門에 귀의했어도 조선 후기 이후 여느 승려와 마찬가지로 유가의 철학과 가치체계를 긍정한 儒釋不二한 삶을 살았으며, 만년에는 禪修行에 정진하며 삶을 마감했다. 이러한 그의 儒釋不

그의 의지와 삶을 추구는 때로는 동료 스님과 반목을 빚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을 낳기도 했다.

그는 불교의 경전 및 유가의 경전을 두루 읽고, 아울러 禪教에 두루 통하여 양종 대종사가 된 분이라고 평가 받았듯이 불교의 경전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식도 탁월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문집의 序文을 쓴 柳肅之가 鏡巖을 ‘중국의 高僧으로서 名文章이었던 惠遠, 太顛’ 등과 같다고 평가하였다.

경암에게 있어서 지리산은 생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이고, 遊樂의 장소였으며, 修禪의 공간이었다. 그는 지리산을 무대로 하여 때때로 道伴들과 혹은 이곳을 찾은 속세의 유자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遊樂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곳에서 신선과 같은 自然一如의 삶을 살면서 禪定에 들기도 하면서 그의 삶과 철학을 다양한 형식의 시 83수로 드러내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僧俗不二의 實踐, 安身樂道の 餘裕, 一心法界의 追求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僧俗不二의 實踐을 드러낸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경암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불교가 유교와 다른 出世間이 사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유교사상과 일치한다는 儒佛一致 사상이 심화되어 있었다. 경암도 당시 불교계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儒佛一致論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자들과 어울려 지리산을 유람하거나 시문을 주고받으며 僧俗不二한 삶을 살았다. 따라서 그는 비록 佛門에 귀의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 세간의 인정을 끊을 수가 없었다. 이는 그의 사유가 유교와 불교, 도교의 이치가 하나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 安身樂道の 餘裕를 드러낸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경암은 13세에 불문에 귀의한 이후 그의 삶의 터전은 지리산이었다. 그는 지리산의 사찰에서 교학을 강화하며 중생을 제도하였으며, 48세부터는 지리산의 산정에 초막을 짓고 禪修行에만 정진하다가 삶을 마감하였다. 경암은 산거에 따른 安身樂道の 여유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萬行에 대한 동경과 이에 따른 심적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생의 대부분을 佛門에 歸

依하여 지리산에 살면서 安身樂道의 여유를 즐겼기 때문이다.

셋째, 一心法界의 追求를 드러낸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경암은 秋波의 문하에서 화엄경을 전수 받는 등 禪教에 두루 통하여 양종 대종사가 된 분답게 화엄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만유의 실체인 一心을 강조하여, 그의 사상과 삶의 궤적은 대립과 차별 보다는 僧俗不二하고 自然一如한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그의 사유의 기저에 화엄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를 실천한 것에서 기인한다.

경암 산거시의 문학사적 의의는 시문학의 작가층이 경화사족 중심의 시문학에서 그 범위가 지방의 재지 유자와 중인층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승려들까지 확대되어 일반화 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문의 내용이 '성정'을 바로잡는 도구라는 기존의 문학관과 거리가 먼 자신의 체험의 시화하는 변화된 문학관을 보여준 것이 의의가 있다.

<參考 文獻>

- 鏡 巖, 『鏡巖集』, 『한국불교전서』 卷10,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 강석근, 『한국불교시의 연구』, 이회출판사, 2002.
- 권동순, 『朝鮮朝 18세기 禪詩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동화, 『禪宗思想史』, 동국대학교 석림회, 1982.
- 김운학, 『불교문학의 이론』, 일지사, 1981.
- 이대형, 『鏡巖 應允과 그의 傳 연구』, 『韓國禪學』 제27집, 韓國禪學會, 2010.
- 이병주, 『韓國漢詩의 理解』, 민음사, 1991.
- 이중찬, 『고려 선시연구』,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이진오, 『한국불교문학연구』, 민족사, 1997.

Abstract

A Study on Gyeongam Eungyun's Mountain Dweller Literature (山居文學)

/ Lee Dong Ja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mountain dweller literature of Gyeongam Eungyun who entered the Byeoksong-sa Temple in Mt. Jiri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was praised as a great master of ZenBuddhism(禪教) and to discuss its meaning in literature history.

Gyeongam Eungyun (1743-1804) is a Buddhist monk who was in activity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in the Chosun Dynasty. His secular family name is Min (閔氏) from Yeohung, and his initial Dharma name was Gwansik but renamed Eungyun later and his Dharma pseudonym is Gyeongam.

Although most of his life was committed to Buddhism (佛門), Gyeongam lived a life of Seungsokbulyi (僧俗不二: Monks and common people are not different), an idea acknowledging the philosophy and value system of Confucianism, like other monks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his later years until his death were devoted to Zen training (禪修行). His will and pursuit of Seungsokbulyi sometimes raised conflicts with his colleague monks and brought him internal conflicts with himself.

For Gyeongam, Mt. Jiri was the ground of his life, a place for pleasure (遊樂), and a space for Zen training(修禪). He took pleasure in exchanging poems with secular Confucians who visited the mountain and led a life of Jayeonilyeo (自然一如 - Becoming one with nature) like a mountain hermit, and sometimes he gave himself over to deep Zen meditation (禪定). His life and philosophy as such were manifested in 83 poems written by him in various forms.

A characteristic of his poetic world is the expression of his practice of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dj@kongju.ac.kr

Seungsokbulyi. It was because the Buddhist circle in those day advocated the theory that Confucianism and Buddhism are the same (儒佛一致論) and, based on this idea, he travelled around Mt. Jiri and exchanged poems together with Confucians as a part of his Seungsokbulyi life.

Second, his poems reveal his leisurely life of Ansinnakdo (安身樂道 - The way of enjoying peace by comforting the body). Since he entered into Buddhism at the age of 13, Mt. Jiri had been the base of his life. Despite his composure in Ansinnakdo, he hinted his being captured by Manhaeng (萬行 - Secular thoughts) and resultant mental conflicts, but through most of his life he lived in Mt. Jiri and enjoyed Ansinnakdo.

Third, his poems pursue Ilsimbeopgye (一心法界 - One mind encompassing the whole universe). As the great master of Zen Buddhism, Gyeongam had deep understanding of Hua-Yen thought and outstanding Zen knowledge. Emphasizing one mind, which is the true entity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his idea and life track sought harmony rather than confrontation and discrimination.

The meaning of Gyeongam's mountain dweller poems in literature history is found in that they show the expansion and generalization of poetry writers to monks in provincial areas. What is more, the contents of his poem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xhibit Gyeongam's view of literature versifying his experiences different from other views of literature in his days.

【Key words】 Gyeongam, Eungyun, mountain dweller literature (山居文學), Seungsokbulyi (僧俗不二-Monks and common people are not different), Ansinnakdo (安身樂道-The way of enjoying peace by comforting the body), Ilsimbeopgye (一心法界-one mind encompassing the whole universe)

| |
|--|
| 투고일 : 4월 25일, 심사일 : 6월 11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 |
|--|